

YELLOW SUN RED MOON Synopsis

1-liner

세상의 종말과 불바다를 함께 맞이하는 불치병의 남과 여.

시놉시스 (Short)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고통스러운 병을 수년간 앓고 있는 중년 남자 마이크, 힘들게 본인을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노모 마저 사라지자 집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지극한 고통 속에 삶을 연명하기 위해 힘든 일상 생활을 이어 가지만,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세기말적 자연재해와 무정부상태와 닮은 사회 상황 때문에 미래의 희망은 없어 보인다. 마약과 매춘으로 점철된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사회복지사로 위장하여 마이크의 집에 도우미로 입주하게 된 나타샤. 본인의 중증 성병을 숨기며 나름 마이크를 간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 마이크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지만, 마이크의 병세는 악화되어만 간다. 지역 전체를 포위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산불에 대비해 경찰과 구조요원들이 주민들의 대피를 명령하지만, 극심한 병세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마이크. 어떻게든 마이크와 함께 도피하려 노력하던 나타샤는 결국 함께 집에 남기로 한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들의 방문을 받는 마이크와 나타샤. 각자의 병세가 극도로 나빠진 와중에도 침입자들을 처리하고는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을 함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시놉시스 (Long)

언젠가부터 원인 불명의 병과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전직 호스트 (남자접대부) 마이크. 고령의 어머니가 정성으로 간병하지만 마이크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통이 심해질 수록 어머니와 하우스메이트들에 대한 폭언과 악행이 심해져만 간다. 뉴스에서는 극한의 산불, 홍수 등의 전 세계적 자연 재앙, 그리고 바이러스의 창궐, 그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와 대피, 폭동, 시위 등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의 사회혼란 등의 소식이 연일 흘러 나온다. 바이러스 증상으로 인해 받은 기침을 연신 해대던 마이크의 노모, 지역을 포위하고 점점 다가오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뿌연 거리로 나가더니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마이크는 집에 홀로 남겨진다. 운신이 거의 불가능한 마이크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연명하기 위해 집안에서 홀로 고군분투를 이어간다. 마이크에 애증을 느껴오던 젊은 게이 하우스메이트 케빈이 성적으로 접근하지만, 마침 마이크의 병간호를 도우러 파견된 사회복지사 나타샤가 나타나 마이크를 곤경에서 구해준다. 같은 집에 상주하게 된 나타샤의 존재를 탐탁치 않아하는 마이크, 병간호와 집안일을 챙기는 나타샤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마이크의 희귀한 병에 도움이 되고자 나름 간호를 게을리 하지 않는 나타샤. 자신이 사용하는 마약을 마이크와 함께 나눠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행복한 잠깐의 시간을 보내는 마이크.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된 듯했던 마이크의 상태는 이후 더욱 심각해진다. 나타샤가 하우스메이트인 외국인 할아버지에게 얻어온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로 다시 한번 증세가 완화 되는 듯 하다가 역시나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한다. 한편, 지역을 초토화 시키며 다가오는 거대한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 전체가 어딘지 모를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을 경찰과 응급요원들이 방문하여 전한다. 마이크의 병간호를 하며 연민과 우정을 느끼는 나타샤, 그리고 그런 나타샤의 마음을 느끼는 마이크. 하지만 나타샤의 과거 매춘 행적과 회복불가능한 성병의

존재를 알게 된 마이크가 나타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타샤는 집 밖으로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마이크를 홀로 두고 정부 명령을 따라 집을 떠나려 한다. 그때 집안으로 난입해 들어오는 침입자들. 그들을 피해 차고로 몸을 숨긴 마이크, 나타샤 그리고 게이 하우스메이트. 그곳에서 마이크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후라이드치킨 봉투를 손에 쥔 채 발견되는 마이크 어머니의 시신, 그리고 마이크의 오열. 침입자들에게 발각된 마이크 일행은 침입자들과 즐겁지 않은 저녁식사를 하게 되고, 이후 침입자들에 의해 성적으로 유린 당하는 나타샤와 게이 하우스메이트. 지역 주민 소개 명령을 안내하던 경찰과 응급요원들이 마이크 집을 다시 방문하고, 도주하는 침입자들을 뒤쫓아 총격전 끝에 그들이 끌고 갔던 게이 하우스메이트 케빈을 부축해 돌아 온다. 결국 대피가 불가능한 마이크만 남겨둔 채, 마이크와 함께 남겠다고 반항하는 나타샤만을 강제로 데리고 사라지는 경찰과 응급요원들. 총상으로 인해 싸늘한 시신이 된 게이 하우스메이트 케빈과 다시 홀로 남겨진 마이크, 스테로이드를 최대치로 주사하고 홀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때 경찰에게 업혀 갔던 나타샤가 홀연히 돌아오고, 그 바로 뒤 침입자들이 쫓아와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나타샤를 혼절시킨다. 경찰이 남겨놓고 간 총으로 침입자들을 처단하고 나타샤와 함께 덮쳐 오는 불바다를 바라보는 마이크.